

으니, 고통을 이기지 못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던 세 사람에게는 기나긴 잠이 뒤따랐고, 이내 빈사 상태에서, 사실상 죽음이 안거줄 안식과도 같은 휴식이 주어졌다네.

라 부르도네 씨는 비밀리에 내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명령에 따라 비르지니의 시신은 우선 마을로 옮겨졌고, 거기서 다시 왕굴나무 성당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알려왔네. 나는 그 즉시 루이항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섬에 사는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마치 이 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듯이 비르지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네. 항구에서는 배들이 활대를 십자로 엮거나 조기를 게양했으며, 긴 간격을 두고 대포를 쏘아댔어. 정예병들이 장례 행렬의 선두에 섰고, 총구를 아래로 해서 소총을 매고 있었네. 기다란 상장(喪章)으로 덮인 병사들의 북에서는 그저 애절한 소리만 울려 퍼졌고, 전쟁에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술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전사들의 표정에 허탈함이 드리운 것이 보였지. 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의 젊은 아가씨들 여덟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꽃에 덮인 자신들의 고결한 동무의 시신을 들어 옮겼다네. 어린이들이 찬송가를 합창하며 그 뒤를 따랐어. 아이들 뒤로는 섬 주민과 총독부 관리 중에서도 가장 지체 높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 바로 뒤로는 총독이 행차했으며, 다시 그 뒤에서 서민들의 무리가 이어졌지.